

중국 기생충 관리 위한 새로운 협조 체제 마련



남 서 중

건협 경남지부 사무국장

한국건강관리협회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 하에 한·중 공동 기생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심양의 중국의과대학, 연길의 연변의학원, 북경의 중국예방의학과학원, 상해 기생충병연구소 등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하던 6월 28일, 필자는 공산권 국가에 대한 조사사업과 미지의 여행이라는데 대한 일종의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일행(임한중 회장, 성정웅 사무총장, 정순표 기획부장, 하성미 부산지부 사무국장, 김점자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서기관, 허선 한림의대 교수, 필자)은 오전 11시 30분에 첫 행선지인 심양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예전에는 심주, 성경, 봉화 등의 이름으로 불리웠고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은 인구 650만명의 중국 동북지방 요령성 중앙부의 도시로 12만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고속도로 주변의 풍경

이 매우 한가롭게 느껴졌다. 끝없이 넓은 평원에 물결처럼 출렁이는 옥수수들의 모습이 우리의 시골풍경과 다를 바 없었다. 그 옛날,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지금의 옥도로 바꾸어 놓은 우리 고구려 동포에 대한 감회가 새로웠다.

심양은 중국 최대의 공업지대인데, 자연 환경 보호에 대한 정책은 고려되지 않은 듯 공기 오염이 심각하여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다. 거리에는 수 많은 자전거와 차량 행렬이 무질서하게 이어졌고 주거의 형태 등은 우리의 70년대 수준으로 보였다.

6월 29일, 우리는 조사사업을 위한 첫 방문처인 심양중국의과대학을 방문했다.王海鹏(WANG HI-PENG) 교수 등의 안내를 받아 기생충학교실을 방문, 심양시민의 간흡충구제사업 현황과 조선족의 식생활 환경에 따른 각종 기생충 감염 상태, 양국의

앞으로의 교류 방안 등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간혹층 감염률이 무려 70%에 달하는 조선족 마을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 나라 신평계약에서 개발한 디스토시드가 구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평계약과 중국이 공동으로 천진에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교실내 흑판에 써 놓은 “열렬환영 한국객인 방문”이라는 글귀와 몇 접시의 과일, 그리고 참석한 교수들의 진지한 분위기 등이 매우 인상깊었다.

오후에는 심양의 고궁 중 북능(北陵)과 신락인(新樂人)을 보러 갔다. 북능은 징기스칸(누루하찌)의 여덟번째 아들인 2대 황제 황태극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그 웅장함과 능을 에워싼 성이 매우 아름다웠다. 징기스칸이 집무했던 대정전은 팔각정 형태로서 위엄과 예술성으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어, 그 옛날 영화를 누리며 한족이 아닌 이민족으로서 300년간 중국을 통일·통치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으니 당시가 가히 짐작된다. 무게가 50톤에 가깝다는 대정전 옆의 신평성덕비는 그 둘째 아들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하며, 하북성의 현에서 운반할 때 겨울을 이용해 물을 뿌려 얼음위로 이동했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긴 했으나 수 많은 노역인들의 엄청난 고생이 연상되기도 한다.

비가 오는 가운데 7천 2백년 전의 여성 지배 지역인 신락인을 찾았다. 모계중심사회인 원시인의 당시 생활 모습 등을 복원·보존한 곳으로, 서울의 강동구 암사동 선사

시대 유적지와 같은 곳 같다. 심양은 여기 저기 여진의 화려했던 영화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으나 한족에 동화되어 오늘날 그들의 말과 글을 잃어 버렸다니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거대한 중국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부흥을 꿈꾸는 중국을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연길의 연변의학원으로 가기 위하여 18시 30분 심양공항에서 수속을 마쳤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인하여 우리가 타고 가려는 비행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그 답답함이란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무려 세 시간 후에야 우리는 출발할 수 있었고 다음날(6월 30일) 01시 15분에 연길에 도착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그날은 매우 지루하게 느껴진다.

연길은 심양에 비해 도시의 규모는 작지만, 51개 소수 민족 중 중국정부가 자치권을 인정한 곳으로 우리 동포가 30만명 정도 살고 있다. 우리 민족의 근면성, 성실성, 우수성은 중국에서도 알아준다는 안내자의 설명과 거리의 밝은 표정, 정돈된 상점의 간판(모두 한글과 한문 병용), 우뚝 선 건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때 심양에 비하면 많이 앞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변의학원으로 가는 길에 연길 중심지 로타리의 연변 예술극장과 '92년 건립했다는 조선족 자치 42주년 기념물인 호랑이 석조형을 보면서, 우리 민족만이 가지는 어떤 동질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연수단 일행과
함께
삼양 시내에서

연길은 더욱 친근감이 가는 도시였다.

의학원에 도착하니 강태경 교수와 전복실 교수가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의학원내부 실습실의 환경과 현미경 위에 놓여 있는 기생충 표본 슬라이드를 직접 들여다 보는 순간, 바로 이것이 오늘의 헌법이 있기까지의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하필이면 멀리 연변에서 나는지…….

의학원의 학생 구성은 조선족과 한족이 반씩이며 교수는 대부분 조선족으로써, 강의는 중국어로 해야 한다고 한다. 연변지역은 계획적인 부락이 아니고, 특히 강을 많이 끼고 있는 자연 부락단위로 형성되어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생활환경이 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으며, 때문에 자연 민물고기 생식을 즐긴다고 한다. 따라서 간흡충에 감염된 사람이 많으며 치료는 프라지판텔 제제(디스토시드)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임한중 회장님의 연구 개발 공적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더불어서 조선족 자치 지역에 있는 연변의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연길에서 버스를 타고 250km. 분단 45년의 세월동안 국사책에서나 배워왔던 그 백두산을 향하는 일행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말로만 듣던 용정, 일송정, 해란강, 지평선을 이루는 평강들, 그리고 지금부터 75년 전 김좌진 장군과 당시 2대 대장이었고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철기 이범석 장군께서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군 여단병력과 싸워 승리로 이끌었던 유명한 청산리 전투지역 등에서 잠시 차를 멈추고 회상할 수 있었다. 이범석 장군의 흉상이 우리 나라 국무총리실에 제막되었다고 하는데, 그분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면 한다.

백두산 25km라는 간판이 있는 지점의 검문소를 통과할 때 여러 명의 부녀자들이 우리 일행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차창 가까이 모여 들어 각자 가지고 온 물건을 팔아달라고 법석이었다. 물건이라야 물, 인삼, 땅콩

등이었는데, 그 중 시선을 끌기 위해 손에 꽃을 들고 열심히 흔들며 대는 가장 어린 소녀(10세쯤)의 물건 중 물과 땅콩 한봉지를 우리 돈 1천원에 사주었으나 관광객을 상대로 한 지나친 상 행위로 생각되었다.

가는 길 곳곳에 자작나무 숲이 하늘에 닿아 그 숲의 끝이 어디인지 분간이 어려웠으며, 4시간을 달려 백두산 입구에 도착하니 대우, 쌍용, 현대 등 국내 굴지의 기업광고 간판들이 반가이 일행을 맞이하여 우리 국력이 세계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전에 화창하던 날씨가 차츰 흐려져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안내자의 말에 따르면 백두산은 일기 변화가 심해 정상에 등정해도 천지를 보지 못하고 하산하는 여행객들이 7할 정도라니 내심 걱정이 되었다. 백두산 등정을 위해 준비된 차를 갈아타고 높이 2,744m의 정상을 향하는 길은, 많은 관광객 수송을 위하여 모두 아이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때문에 자연이 지나치게 훼손되어 있었다.

출발 50분 후 정상을 100m 거리에 두고 도보로 등정을 시작했다. 10분 정도 걸어 마침내 최고봉인 병사봉에 올라 그 장엄한 천지를 볼 수 있었으니 중국 여행 중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 여겨졌다. 그럼으로만 볼 수 있었던 천지를 직접 대하고 보니 그 규모나 아름다움, 웅장함에 놀랐으나, 일행이 서 있는 앞쪽이 바로 북한이라서 남북이 통일되어 판문점, 개성, 평양을 거쳐 우리 땅 백두산에서 천지를 보는 그 기쁨은 언제

맛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중히 간직하고 간 협회기를 중심으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하산할 무렵, 안개비는 비바람으로 변했고 20분 후 여행객들은 더 이상 백두산과 천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2주 전 중국 강택민 주석도 백두산을 다녀갔으나 역시 마찬가지로였다고 하니, 우리 일행에게는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연길에서 56km를 달려 도착한 도문은 인구 13만의 소도시로 북한의 함경북도 남양읍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이루는 곳이다. 세계의 끝이 남극과 북극이라 하지만 우리 민족의 끝은 바로 여기구나 생각하니, 두만강변의 아름다움보다는 분단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슬픔이 느껴졌다. 서글픈 감정을 억제하며, 길은 있으되 갈 수 없는 곳을 되돌아 북경 방문을 위해 연길로 향했다.

오는 길에 길림성 용정시 용정 선린관을 잠시 견학했다. 이곳은 서울 경동교회에서 파견된 정광서 원장께서 양로, 고아 후생복지사업을 하는 곳으로, 아직은 개원 전이었으나 멀리 이국땅에서 가족과 함께 우리 동포들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원장께 임희장님이 선린관 발전을 위한 금일봉을 전달했다.

7월 1일 22시 20분, 연길공항에서 북경발 비행기에 올랐다. 탑승객 모두가 한국인이어서인지 승무원이 한국 가이드에게 기내 방송을 부탁하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7월 2일 01시에 일행은 북경에 도착했다. 북경에서는 최고라는 신만수호텔(GRACE HOTEL)까지 가는 고속화 도로는 서울의 청계고가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려 있어 최근에 건설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화려한 네온싸인의 불빛이 세계적인 도시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호텔에서 내려다 본 북경 시내는 바둑판처럼 잘 정돈된 계획도시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공원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아침 운동에 열심이었는데, 전신에 기를 모으는 동작과 중국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쿵후, 음악에 맞추어 사교춤을 추는 남녀노소의 모습 등 모두가 건강을 지키려는 한결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오전에는 중국예방의학과학원을 방문했다. 기국명(祁國明) 부원장 외 여러분의 환영을 받으면서 4층 회의실에 안내되어 과학원이 하는 일을 일일이 설명들었다. 우리같이 소개책자나 현황표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방문객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었으나 아쉽게도 그런 자료가 없어서 필자로서는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방의학과학원은 국민 보건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질환의 통계, 임상, 실험, 영양과 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환경연구, 질병에 대한 유병률 조사사업, 급성 전염병 취합기능, AIDS 검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 23개의 성(城)과 3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에 온라인 전산망을 보유하고 한달에 한번씩 2,600개 현의 각종 보건자료를 취합하여 국가 정책사업의 기초 자료로

중국에서는 한자를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없어 영어발음을 입력한 후 한자를 찾아 입력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새삼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활용한다고 한다. 또 과학원 산하에는 각종 연구소도 8개나 두고 있다고 한다.

일행은 전산실로 안내되어 전산운영 방법과 컴퓨터 기종 등을 견학했다. 기종은 286급이 주종을 이루었고 386급이 간간히 보였다. 주 전산 시스템의 용량 등을 감안할 때 12억 인구의 통계를 전달할 수 있을런지 궁금했다. 여직원이 열심히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유심히 보았더니 한자를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없어서 영어 발음을 입력한 후 한자를 찾아 입력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우리는 얼마나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새삼 한글의 우수성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견학을 마친 후 임한중 회장께서 과학원으로부터 명예교수직을 받았다. 우리 나라 기생충학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고 지금은 세계 기생충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임 회장으로서서는 당연히 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하며 과학원을 떠났다. 나중에 임회장께 명예교수직에 관하여 여쭙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셨다. <계속> 23